

【특 집】

재만(在滿) 시절 이덕성의 삶과 그의 비평 활동*

사책(史策)**

차례

- I. 들어가며
- II. 이덕성의 등장과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 인식
- III. 조선 문화의 미래와 태평양전쟁기 문화 동원의 윤리
- IV.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덕성(李德星, 1915~1948)의 생애와 그의 재만(在滿) 시절 비평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이덕성은 약 50편에 달하는 문학 관련 담론을 통해 전통과 혁신, 민족성과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을 사유하며 문화적 자율성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기의 문화 동원 상황 속에서도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과 문학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재만 조선인 문학의 이론적 지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그의 문학 담론을 분석하여 당시 문학 담론의 방향성과 이덕성 사상의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그의 사유는 서구 이론과 민족주의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비평 논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만주 조선인 문학 장(場)의 이념적 전환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이덕성, 만주 조선인 문학, 태평양전쟁, 예문지도요강

* 이 글은 2025년 2월 12일, 만선일보연구회와 국민대학교 만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만선일보연구회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워크숍 당시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교 아시아학과 전임강사.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재만(在滿) 조선 문인 이덕성(李德星)의 비평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덕성(창씨명: 國本宗秀)¹⁾은 1915년 함경도 원산(元山) 현동리(峴洞里)에서 태어나, 1948년 서울 한강에서 익사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위(僞)만주국 유일의 조선어 신문인 『만선일보(滿鮮日報)』, 만철(滿鐵)의 기관지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每日新報)』 등 지면에 약 50편의 문학 평론을 발표했다. 이후 상하이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 사회학부 연구실에서 사회학을 연구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 강사로 재직하였다.

현존하는 『만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태평양전쟁 시기 『만선일보』의 문화면은 주 1회로 축소되었고, 문학 평론 부분은 거의 이덕성이 단독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더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덕성이 『만선일보』 문화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점은 『만선일보』가 재만 조선인 문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예문지도요강(藝文指導要綱)』이 공포된 이후, 이덕성은 만주 조선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덕성은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의 활동 무대가 일제 말기와 만주라는 시공간이라는 점이고, 6·25전쟁 발발 직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몇몇 새롭게 발견된 평론들을 제외하면, 이덕성의 저작으로는 1949년 정음사(正音社)에서 간행된 유고(遺稿) 『조선고대사회연구』만이 남아 있다. 이 책의 부기(附記)에 따르면, 『조선고대사회연구』는 이덕성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의 제2학기 ‘조선 고대 사회사’ 강의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²⁾ 또한 이덕성이

1) “筆者의 舊名은 李德星.”(國本宗秀, 「滿洲文化人の 課題」, 『만선일보』, 1942.03.16, 4면)

2) 이덕성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맡았다는 사실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고대사회연구’, ‘조선고대사’, ‘원시사회(연구)’, ‘고대사회’ 등 고대와 관련된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었으며, 이 과목들을 이덕성이 담당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오름시스템, 52-53쪽 참고) 이 지면을 빌려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경남대학교 조정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역사학연구』에 게재했던 「新羅王系와 骨品の 形成過程」이란 논문도 이 책에서 수록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와 오수익(吳壽益)이 전문 교정을 맡았고, 김일출(金一出)이 도표를 복사해서 만들었으며, 발문(跋文) 「故 李德星 氏를 吊함」을 작성했다.³⁾

이 발문에서, 이덕성과 오랜 친구가 된 김일출은 이덕성의 요절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덕성의 생애를 진술했다. 이는 이덕성의 만주 활동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이덕성에 관한 연구 성과로 확인되는 것은 윤선태가 『조선고대사회연구』를 다룬 서평 「‘중국사회사 논전’의 수용과 새로운 국가형성론의 전개」 정도뿐이다. 이 서평은 주로 고대사적 관점에서 『조선고대사회연구』가 보여주는 역사관과 과학주의 경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발문과 김일출의 경험을 결부하여 이덕성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였다.⁴⁾ 이 연구는 이덕성의 문학 활동을 주된 논제로 다루지 않았기에, 이덕성의 만주 활동 대신 상하이의 중국인 지성계의 관계를 좀 더 주목했다.

이덕성에 대한 발문에 따르면, 김일출은 이덕성이 만주 시기에 약 50편의 문학 평론을 발표했으며, 이를 정리하여 출판할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그 부기에도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이덕성의 문학 평론을 수집해 달라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 6·25전쟁의 발발과 김일출 본인의 월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확인 가능한 1940년부터 1943년 사이에 발표된 12편의 문학비평(총 31건)과 1편의 수필을 수집하여(구체적인 서지 정보는 부록 참조), 『만선일보』, 『만주일일신문』, 그리고 안수길의 회고⁵⁾ 등 자료에

3) 김일출, 1949, 「跋: 故 李德星 氏를 吊함」, 『조선고대사회연구』, 정음사, 145-149쪽 참고.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이덕성의 생애 정보는 모두 해당 글에서 인용한다.

4) 윤선태, 1996, 「‘중국사회사 논전’의 수용과 새로운 국가형성론의 전개」, 『역사와 현실』 20, 256-273쪽. 하지만 특별히 설명해야 한 것은 해당 서평에서 이덕성의 생애에 관한 논의는 주로 김일출 본인의 행적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덕성이 상하이 동아동문서원대학에서 받은 중국 문학 및 사회학적 영향에 대한 논증은 다소 과도한 추측의 경향을 보인다. 본문에서 다루는 이덕성의 재만 시기 행적은 어디까지나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물론, 김일출의 개인적 위상과 『조선고대사회연구』가 이덕성의 유고라는 점에서 해당 서술의 신뢰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안수길, 『龍井·新京時代』, 강진호 편, 1999,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255-284쪽. 이 글에서는

흩어진 단편적 기록을 종합함으로써, 평론가로서의 이덕성의 면모를 최대한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어느 정도 80년 전 김일출의 소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또한, 본문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덕성은 여러 지면에서 자기 인용과 자기 언급을 활용하며 자신의 사유 논리를 일관적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의 고도로 상호텍스트적인 글을 재검토하면, 현존하는 ‘단장(斷章)’ 속에서도 그의 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덕성이 만주 조선인 문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조선인의 전통과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논증했는지는, 당시 재만 조선 문인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참신하고 이론적인 면모⁶⁾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요 활동 시기가 『예문지도요강』(1941.03) 공포 이후와 태평양전쟁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덕성의 평론에 대한 고찰은 같은 시기 재만 조선 지식인들이 문화 동원에 대응했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덕성의 문학 평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고찰과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이덕성이 『만선일보』 문화면의 중추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과정과, 그가 만주 조선인 문학의 자율성과 그 건설 방향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태평

이덕성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안수길의 자신의 만주 경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덕성의 이름이 간략히 언급된 정도에 그쳤음을 미리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회고에서 안수길은 개인 작품집 『북원』(1944)을 연길의 예문당(藝文堂) 서점에서 출판하게 된 배경으로 이덕성의 알선을 언급하였다. (277쪽 참고)

- 6) 여기서 말하는 재만 조선 문인들은 주로 1940년대 초반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新提議)’라는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지칭한다. 본문에서는 이덕성의 논의와 이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비교·대조하지 않지만, 다른 재만 조선 문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장춘식과 리하일라 G. 휴어드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춘식, 2012, 『『만선일보』 지상토론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의 가치와 의미』, 『건지 인문학』 8, 323-351쪽; 리하일라·허워드, 백종륜 역, 2022,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연구』 35, 71-100쪽.
- 7)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흥보 신체제 하에 이루어진 재만 조선인 문화 동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논의는 재만 조선 지식인들이 문화 동원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반면, 본 연구는 이덕성이 이러한 문화 동원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학 이론적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곧 이덕성의 ‘수동적 동원’ 양상을 검토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책, 2024, 『흥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재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8, 75-111쪽.

양전쟁 시기 이덕성이 문화 건설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문학비평을 통해 실천한 구체적 방법을 논할 것이다. 셋째, 이덕성의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 전통으로서의 '조선'과 국민으로서의 '만주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려 했는지 규명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만주 조선인 문학사의 맥락 속에서 이덕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아직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태평양전쟁기 만주 조선인 문학(문화)의 건설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덕성의 등장과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 인식

김일출의 발문에 따르면, 이덕성은 20대 초반 만주에서 생활하였으며, 마르고 건강한 체격과 밝고 낙관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⁸⁾ 그러나 이덕성이 만주로 떠난 이후 그곳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941년 8월 『만주일일신문』에 발표된 그의 글에서 “필자: 만주산업주식회사 근무”라는 서명⁹⁾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덕성이 1940년대 초반에 당시 동만주산업주식회사(東滿洲産業株式會社)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회사는 193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도쿄에 위치했고, 주요 업무는 ‘간도성(間島省)’에 있는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만주철도주식회사, 동만광업주식회사, 만주친화무역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전액 혹은 일부 투자하며 운영했다.¹⁰⁾

이덕성의 문학 평론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1940년 『만선일보』에 ‘문학과 생

8) 김일출, 1949, 앞의 글, 145-146쪽 참고.

9) 岡本宗秀, 「朝鮮文學の性格(1)-“農民”登場の時代」, 『滿洲日日新聞』, 1941.08.29, 조간 4면.
이 글의 저자 이름은 ‘國本’이 아닌 ‘岡本(오카모토)’이다. 한편, 이덕성의 「藝文交流를 爲하여-文學의 自主性 (二)」(1942.04.06, 『만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직접 언급·인용하였기에 이 글은 이덕성이 쓴 것이 틀림없다.

10) 『東滿洲産業株式會社 社業概觀』, 1941, 東京: 善信堂印刷社, 1-6쪽 참고.

활'이라는 제목의 독서 노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예술과 삶에 대한 태도를 논했으나, 만주 조선인 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¹¹⁾ 이덕성이 만주 조선인 문학 장(場)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41년 이후였다. 1941년 이전까지 그는 만주 조선인 문학 건설과 관련한 주요 담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1941년 말부터는 문학 장 활동을 재조명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참고로, 이 역할은 1940년 당시 『만선일보』의 학예부 기사였던 고재기에게 주어졌던 바 있다. 또한, 1942년 4월 '학예 소식'에 따르면, 당시 재만 조선 문인들은 비평, 창작, 시,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문학 연감을 준비 중이었으며, 그 조직자들에는 『만선일보』의 신영철, 안수길, 고재기와 같은 사내 인사뿐 아니라 사외 인사인 이덕성도 포함되었다.¹²⁾ 김일출은 이덕성의 문장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그의 글이 즉흥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반복된 고뇌와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임을 강조하였다.¹³⁾ 이는 이덕성이 만주 조선인 문학 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한편, 1941년은 만주 조선인 문학 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1940년 말, 『만선일보』 편집국장 홍양명과 학예부장 이갑기, 일부 학예부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이 결과 이갑기와 학예부원 황건이 사임하였다. 홍양명 또한 1941년 3월 『만선일보』를 떠났으며, 일본인 스가와라 리이치(菅原理一)가 새로운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었다.¹⁴⁾ 같은 시기, 위만주국 홍보처는 『예문지도요강』을 발표하였다. 당시 홍보처장 무토 토미오(武藤富男)는 이 요강이 “만주국 예술과 문학 발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만주국 경제 건설 요강에 비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였다.¹⁵⁾ 또한 이 해는 신영철을 비롯한 『만선일보』의 남

11) 李德星, 「文學과 生活 (上)」, 『만선일보』, 1940.12.29, 4면; 李德星, 「文學과 生活 (下)」, 『만선일보』, 1940.12.31, 4면 참고.

12) 「(學藝消息) 在滿鮮系作品年鑑發行準備」, 『만선일보』, 1942.04.20, 4면 참고.

13) 김일출, 1949. 앞의 글, 146쪽 참고.

14)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연구 「홍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재 담론을 중심으로」(앞의 논문)를 참고할 수 있다.

아 있던 사원들이 단행본 등을 통해 새로운 만주 조선인 문학 건설 방안을 모색 하던 시기이기도 했다.¹⁶⁾ 이러한 상황에서 『만선일보』 학예면(문화면)에서 활동하던 일부 문인들은 새로운 문인들로 점차 대체되었고, 이덕성은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41년 말, 이덕성은 「문단 송년 유감」이라는 글을 발표 하며, 이 글의 서두에서 1941년을 '만주국 예문(藝文)의 신기원'이라고 강조하였다.

藝文指導要綱의 發表에 따라 藝文家 陣容의 強化와 및 綜合誌 『藝文誌』의 發刊을 보게 된 今年는 實로 滿洲國 藝文의 新紀元을 지은 一年이었다. 우리 鮮系 藝文界에 있어도 待望던 在滿朝鮮人作品集이 刊行되고, 今年中에 發表된 作品의 質과 量이 아울러 飛躍의 相을 如實히 나타내어 그 속에는 넉넉히 不減한 文字가 있었고, 다시 앞날의 結實을 約束하는 □□의 앞사귀가 있었다. 建設의 第一年을 보내면서, 우리 들 마음 가운데엔 이 땅 滿洲에서 文學하려는 者가 아니면 應당 가질 수 없는 切々한 것이 있음을 自抑키 어려우리라.¹⁷⁾

여기서 언급된 종합지 『예문지』는 1942년 1월 신경(新京)의 예문사에서 창간된 일본어 종합 월간지 『예문(藝文)』을 가리킨다.¹⁸⁾ 1941년 3월 23일, 홍보처는 신경

-
- 15) 武藤富男, 1988, 『私と滿洲國』, 東京: 文藝春秋社, 335쪽, 재인용; 单援朝, 2016, 『漂洋过海的日本文学: 伪满殖民地文学文化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제2면 제1장 참고.
- 16) 예컨대, 『만주조선문예선』은 신경(新京) 소재 조선문예사(朝鮮文藝社)에서 1941년 11월 5일에 출간된 수필집이며, 『썩트는 대지』는 만선일보 출판부가 1941년 11월 15일에 출간한 소설집이다. 두 책의 편집자는 모두 신영철(申榮澈)이다. 이 두 책의 세부적인 출판 경위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수길의 회고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안수길에 따르면, 『만주조선문예선』과 『썩트는 대지』의 출판은 신영철의 적극적인 추진 덕분이었다. 신영철은 만주를 '망명문단'으로 만들고자 신문 지면을 통해 문학을 발전시키고, 작품집을 출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안수길, 1999, 앞의 글, 265-266쪽 참고)
- 17) 李德星, 「文壇送年有感(上)―意識에의 志向」, 『만선일보』, 1941.12.30, 4면.(본 연구에서 인용한 『만선일보』의 원문은 필자가 신문에서 직접 발췌한 것이다. 인용 부분은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수정되었고, 한자는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독해가 불가능한 경우 "□"로 표기했다.)
- 18) 여기서 언급되는 『예문』지는 중국어판의 『예문지(藝文志)』와 만주예문연맹이 1944년 1월 창간한 일본어판 기관지 『예문』과 구분되어야 한다. 『예문지』는 1939년 6월 신경(新京)에서 창간된 순문학 동인지였다. 이 잡지는 반년간으로 발행되었으며, 3집 발행 후 1940년 6월에 폐간되었다가, 1943년 11월에 만주예문가협회의 중국어 기관지 형태로 복간되어 월간지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서 만주의 문예 활동을 통합하고, 통일된 문예 단체와 문학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전만예문관계자간담회(全滿藝文關係者懇談會)’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예문지도요강(藝文指導要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예문협회 설립과 종합잡지 출판 계획이 추진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만주예문연맹(滿洲藝文聯盟)과 종합지 『예문』이 창간되었다.¹⁹⁾

비록 『예문지도요강』이 본질적으로 규범적 검열 기준을 확립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주요 대상이 당시 재만 중국과 일본 문인이었다 하더라도, 위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덕성이 『예문지도요강』과 종합지 『예문』의 출현을 ‘예문가 진용의 강화’이자 ‘만주국 예문의 신기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942년 1월에 발행된 『예문』 창간호에는 재만 러시아 문인 바이코프의 평론 「일본 작가의 인상(日本作家的印象)」(일본어 번역본)과 재만 중국 문인 량산딩(梁山丁)의 소설 「함성지대(鹹性地帶)」(일본어 번역본)가 수록되었다. 이러한 편성은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이념 아래 각 민족의 문학이 조화롭게 ‘만주 문학’이라는 장(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예문지도요강』의 발표는 이덕성에게 만주 문학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능성과 열정을 환기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덕성은 만주 문예의 이념이 ‘민족협화국(民族協和國)’이라는 통일된 목표를 지향하며 이를 구현하는 정신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식의 시대에 처한 금일의 만주 문학이 어떠한 중핵체(中核體)를 지니고 무엇에 뿌리를 두

1944년에 창간된 『예문』지는 1944년 1월 만주예문연맹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그 전신은 『만주예문통신(滿洲藝文通信)』(1941년 11월~1943년 10월)이다. 발행 주체와 잡지 성격의 차원에서 1944년에 창간된 『예문』지는 1942년 1월 창간된 『예문』지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매체이다.

중국어판 『예문지』에 대해서는 刘晓丽的『异态时空中的精神世界：伪满洲国文学研究(修订本)』(2017, 哈尔滨：北方文艺出版社, 56-91쪽)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어판 『예문』에 대해서는 单援朝의『漂洋过海的日本文学：伪满殖民地文学文化研究』(2016,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제2장)과 전경선의『태평양전쟁 말기 만주국의 문예정책：잡지 ‘藝文’을 중심으로』(2016, 『만주연구』 21, 35-65쪽)를 참고할 수 있다.

19) 武藤富男, 『私と滿州國』, 앞의 글, 335쪽, 재인용: 单援朝, 2016, 앞의 책, 제2장 참고. 전만예문관계자간담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만선일보』 1941년 3월 25일자 기사 「滿洲文化의 指針, 藝文指導要綱發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어 발전해 갈 것이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즉, 건국 정신의 살진 토양 위에 각 민족의 실생활이 뿌려놓은 씨를 우러르고, 싹이 돋아 다시 꽃이 되어 알곡의 열매를 맺도록 가꾸고 복돋아 주는 것이, 그리고 주어야 할 것이 곧 만주 예문이라고……”²⁰⁾

이덕성은 이러한 홍보처의 낙관적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1941년 8월 만철(滿鐵)의 기관지 『만주일일신문』에 「조선 문학의 성격(朝鮮文學の性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며 재만 일본인들에게 조선 문학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덕성은 1942년 3월 『만선일보』에 발표한 평론에서 조선 문학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부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조선 문학이 다른 민족 독자층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²¹⁾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덕성의 만주 문학 건설에 대한 입장이 당시 만주 문단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조선 작가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1940년 3월 22일 열린 ‘내선만 문화 좌담회(內鮮滿文化座談會)’에서 만선일보사는 만일문화협회(滿日文化協會)의 지원을 받아 주요 재만 일본 및 중국 문인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마무라 에이지는 조선 측 작가로서 일부 재만 조선 작가들이 조선어 창작을 지나치게 고집하며 의도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인의 생활이 점차 일본화되고 있으므로 일본어를 사용하여 조선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²⁾ 반면, 이덕성의 평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그가 조선어 창작과 번역을 명확히 구분하며, 조선 문학의 창작과 보급을 통해 이를 만주 문학, 나아가 세계 문학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문지도요강』에 대한 열정을 조선어 창작 가능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國本宗秀, 「藝文交流를 爲하여-滿洲藝文의 性格(完)」, 『만선일보』, 1942.04.20, 4면.

21) 國本宗秀, 같은 글.

22) 「國民文學의 建設! 滿州國에서도 考慮될기-文學과 言語論 其他(四)」, 『만선일보』, 1940.04.09, 조간 4면. 내선만 문화 좌담회의 관련 정보와 이 대회에서 논의된 민족 언어 사용 문제의 경위는 줄고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47-50쪽)를 참고할 수 있다.

『예문 교류를 위하여』라는 평론에서 이덕성은 1941년 12월 일본 『지성(知性)』 잡지에 발표된 이와카미 준이치(岩上順一)의 「신인론(新人論)」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본 문단이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을 어떻게 평가하고 위치시키는지를 논의했다. 이와카미 준이치는 「신인론」에서 김사량의 여러 일본어 작품과 아오키 히로시(青木洪)의 장편소설 『경작하는 사람들의 무리(耕す人々の群)』를 분석하며, 조선 작가들이 일본 작가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평론가들이 조선 작가의 민족적 신분을 이유로 작품을 특별히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편견 없는 비평만이 일본 내외의 문학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성의 초점은 이와카미 준이치의 비평이 정확한지 여부에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이 일본의 지역 문학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이들 작품에서 조선 문학의 ‘소양’과 ‘지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조선 작가들의 일본어 창작이 일본 작가들의 그것과 어떤 차이와 공통점을 지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 문제를 한층 심도 있게 논의했다.²³⁾

우리 滿洲文壇은 作家 安壽吉을 가졌다. 安壽吉의 『벼』와 『새벽』을 우리는 滿洲文學의 一方向을 指示하는 力篇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作品이 오늘날에 있어 滿洲文學의 一領野를 擔當하는 理由가 口邊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다 緊要한 問題가 된다. 더구나 같은 鮮農의 生活을 取材했어도 日系作家의 손으로 쓰워진 『洛東江』 『幸福』 등의 小說과 散文詩 『早春』과 같은 作品을 두고 볼 때 安壽吉의 前記의 두 中篇과 作品集 『짜트는 大地』에 실린 諸作品의 性格을 다만 風土傳統 속에 가지는 作家의 主體의 體驗과 客觀의 觀察의 差로만, 卽 作家의 成長과 生活의 差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比較的 滿洲生活을 더 많이 가진 關係로 滿洲가 낳은 作家라고 할 수 있는 安壽吉의 여러 作品과 朝鮮內地作家의 滿洲生活 取材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다시 『벼』와 『새벽』을 和文으로 翻譯하여 滿洲의 日系文壇에 내놓는다면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處해 있는 位置에 對하여

23) 國本宗秀, 「藝文交流를 爲하여—朝鮮作家의 位置(一)—, 1942.03.23, 4면 참고.

嚴肅한 自覺을 가져야 할 것이다.²⁴⁾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덕성은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명했다. 즉, 재만 조선 작가들의 주관적 체험과 조선어 창작을 통해 만주 조선인 문학을 재만 일본 작가나 조선 문단 작가들이 다른 재만 조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과 구별해야 하고, 이를 통해야만 만주 문학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덕성은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을 작가 신분, 창작 언어, 창작 소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규명했다.

첫째, 이덕성은 ‘재만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재만 조선 작가의 ‘주체적 체험’과 조선 문단 작가의 ‘객관적 관찰’을 구별하고자 했다. 이 주장은 실제로 1940년 초에 기획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新提議)’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그 당시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던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주마간산(走馬看山)적인 만주 고찰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피상적인 태도에 대해 박영준과 윤도혁을 비롯한 재만 조선 문인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²⁵⁾ 1942년 5월쯤, 장혁주는 일본 척무성(拓務省)의 파견을 받아 만주 조선인 개척지에 시찰을 가고 개척지 조사를 하면서 소설 활동을 준비하기도 했다. 『매일신보』에 실린 「재만 작가의 문학」에서 이덕성은 조선 문단의 작가들이 만주에 대한 관심과 만주 관련 창작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지만, 이러한 객관적 관찰에 기반한 창작은 만주에서 살아온 조선 문인들의 주관적 체험에 비해 깊이와 생동감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개척 활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개인적인 삶을 그리면서 불가피하게 자기 제한을 받았지만, 개척 과정의 희생, 건설, 노동, 향수 등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창작만이 독특한 만주 문학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²⁶⁾ 『썩트는 대지』에 수록된 박영준의 단편 「밀림의 여인」에 대해서 이덕성은

24) 國本宗秀, 같은 글.

25)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에서 재만 조선 문인들이 조선 문인들의 만주 서사에 대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줄고 「1940년대 『조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을 중심으로」(2023, 『만주연구』 35, 28-33쪽)를 참고할 수 있다.

26) 李德星, 「在滿作家의 文學(三)」, 『매일신보』, 1942.11.05, 2면 참고.

소설의 줄거리와 묘사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의 '귀순 서사'가 만주 조선인 문학에서 처음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만주 조선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²⁷⁾ 이런 맥락에서 『싹트는 대지』의 출판은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안수길의 친구인 최기정(崔其正)도 비록 조선 문단에는 만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싹트는 대지』는 만주 땅에서 싸워진 고난과 눈물을 진실하게 묘사했고, 이러한 내용은 현지 사람들의 현실과 고통을 깊이 반영했다고 이 작품의 의미를 평가했다.²⁸⁾

둘째, 이덕성은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위만주국에서의 예문 건설 과정 속에서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이마무라 에이지와 같은 재만 조선인 작가들이 조선어 창작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본어로 만주 문단에 진입했으며, 또 조선 문단에서도 일본어로 작품을 쓰고 일본 문단에서 주목받은 사례가 있었다. 2세대 이민자들이 공교육과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어 창작의 강조는 민족 문화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덕성은 오족협화의 '건국이념'을 빌려 위만주국에서 각 민족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했다. "만주 내 각계 민족의 생활과 문화는 글자 그대로 만주를 형성하는 각계 민족의 생활이요, 문화이다. 각계 민족의 머리 위에 만주국이 색다른 자태로 군림(君臨)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그들 각계 민족의 생활과 더불어 만주국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 각자의 총력이 곧 만주제국의 총력이니, 만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듯 전체성의 윤리를 잊을

27) 李德星, 「文壇送年有感(下)―作家論의 性格」, 『만선일보』, 1941.12.31, 4면.

28) “일찍 朝鮮文壇의 作家들 中에서도 滿洲를 取材한 作品들이 없는 바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作品들이란 一律의 抽象的 概念的 作品들뿐이다. 거기에 흐르는 리듬이 滿洲에 生口한 霧圍氣를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隔靴搔痒의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었었다. 그러나 이번 이 作品集에 나타나는 內容만은 이 땅 滿洲의 霧圍氣를 그대로 呼吸했고 息으로 더불어 쌓이고 이 고장 現實과 더불어 부딪친 눈물의 쓰라린 體驗에서 나온 알뜰한 純粹品들인 것이다.” 崔其正, 「『在滿朝鮮人作品集』讀後感(上)」, 『만선일보』, 1941.12.18, 3면.

수 없다.”²⁹⁾ 그뿐만 아니라, 이덕성은 『만주일일신문』에서 민족성을 지닌 만주 조선인 문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재만 일본 지식인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사분의 일 세기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온 지금, 조선 문학이 앞으로 고향 혹은 지방 문학으로 존재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민족의 정서 위에 선 특수 문학으로서 지속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선 문학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나 또한 오랜 세월 깊은 고뇌를 겪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심정은, 언어와 문학의 유기적 연관성 자체보다는 문학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열정이 현실적인 엄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은총에서 내던져지기 직전에 청교도가 느꼈던 절절한 감정 따위가 아니다. 문학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문학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의 정신은 결국 영원한 진실성 탐구의 정신이어야만 했다. [한국어 번역: 필자]³⁰⁾

위와 같은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국어’ 또는 ‘비(非)모국어’ 창작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덕성은 문학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현실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더 중요시했다. 그는 문학이 단순히 문자의 예술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담고 있는 힘이며,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이덕성의 말을 빌리자면, 조선 문학은 그 자체를 넘어서는 힘을 지니며, 그 힘이 바로 문학을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동력이다.³¹⁾ 『만주일일신문』의 독자층이 주로 재만 일

29) 國本宗秀, 「藝文交流를 위하여-滿洲藝文의 性格(完)」, 『만선일보』, 1942.04.20, 4면.

30) 岡本宗秀, 「朝鮮文學의 性格(3)-我らの 生きる 道」, 『滿洲日日新聞』, 1941.08.31, 조간 4면.

일본어 원문: 過去四半世紀の間に驚異的發展を遂げた朝鮮文學が、今後に於て郷土乃至地方文學として存在すべきか、又はどこ迄も民族の情緒の上に特殊文學として生き永らふべきかについては、朝鮮文學に縁を持つ誰もがさらであるやらに、自分も相當深刻に長い間を苦しんで來たつもりである。とはいへ、現在における私の心境は、言語と文學との有機的關聯性そのものよりも、文學の本質的屬性への情熱が現實的嚴肅さを以てわれらの仕事をリードしているやらに思はれて仕方がない。これは神の恩寵から抛り出されるその間際におけるピューリタンの切ない氣持でもなんでもないのである。文學人以前において既に文學人としての使命を擔はされたわれらには、新世代の精神とは畢竟、永遠なる眞實性探求のエスプリであらねばならなかつたのである。

31) 岡本宗秀, 「朝鮮文學의 性格(2) - 作家以前の精神」, 『滿洲日日新聞』, 1941.08.30, 조간 4면.

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덕성의 이러한 발언은 단지 재만 조선 작가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비록 이 신문이 일부 재만 조선인 문학청년이나 기성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주 문단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문인들에게 조선 문학의 사명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정도 이덕성이 '내선만 문화 좌담회'에서 다룬 민족어의 사용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셋째, 이덕성의 입장에 따르면, 모든 재만 조선 작가의 작품이 '만주 조선인 문학'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만주 조선인 문학은 재만 조선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문학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모색 과정에서는 창작과 비평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문단 송년 유감」에서 이덕성은 비평의 중요성과 비평가 양성의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비평이 작가론이나 작품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륙문학의 성격론', '문학의 풍토성', '생산문학' 등과 같은 일반 문학론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한편, 개척지 문화와 개척지 2세대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스기와라 리이치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1939년 8월, 조선 총독부는 일본 척무성과 위만주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이민'이라는 용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개척민'으로 개칭하고, '이주지', '이민지', '이식지'를 모두 '개척지'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명량'하고 적극적인 개척 동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³⁴⁾ 앞서 언급한 이기영의 연재 소설 『대지의 아들』은 이

32)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적어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 재만 일본 문인들이 만주 문학의 언어 통일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선만 문화 좌담회' 이후 『만선일보』에 실린 '문화인의 소견(所見)' 칼럼에서 재만 일본 문인 오우치 다카오(大内隆雄)는 각 민족 언어의 사용을 유지하고, 번역을 통한 문화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기무라 유조(杉村勇造)는 위만주국의 언어가 최종적으로 통일될 것이며, 그 언어는 다민족 언어가 혼합된 형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줄고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앞의 논문, 47-57쪽)를 참고할 수 있다.

33) 李德星, 「文壇送年有感(上)-意識에의 志向」, 『만선일보』, 1941.12.30, 4면 참고.

34) "척무성과 만주국에서는 이민(移民)이라는 명칭이 만주이민의 실재를 표현하는 적당한 말이 아니라고 하여 이미 이들 개척민(開拓民)으로 개칭하기로 된 것은 기묘한 바와 같은데 총독부에서도 금후 특히 지장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만주이민에 한하여 개척민이라고 하기로 되었다." 「移民을

러한 '대륙 개척' 계획에 부응한 작품이다. 연재 예고에서는 이 작품을 '개척자의 생활'을 기록한 '백만 개척민의 혈한기(血汗記)'로 소개하였다.³⁵⁾ 또한, 만주의 경우 1940년 8월부터 만선일보사가 흥농부(興農部)와 개척총국 등 기관과 협력하여 '선계(鮮系) 개척지 순회 위문반(慰問班) 파견 사업'을 전개하였다.³⁶⁾ 1940년 12월부터 『만선일보』는 매주 월요일 4면을 기존의 '학예·가정 판'에서 '개척민 판'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개척민 독자를 끌어들이고자 했다.³⁷⁾ 이 외에도 만선일보는 개척민 인터뷰, 개척민 좌담회, 개척지 고찰 등 다양한 형식을 기획하여 개척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도시 지식인 위주의 독자들에게 개척민의 상황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척 문학의 건설은 자연스럽게 만주 조선인 문학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³⁸⁾

1942년 1월 1일, 『만선일보』 신년호에서 이덕성은 「개척 문화의 윤리」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안타깝게도 자료의 대량 유실로 인해 현재는 첫 회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첫 회에서는 주로 '문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다루었으며, 개척 문학의 구체적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 작가의 문학」이라는 평론을 통해 개척 문학의 단서를 엿볼 수 있다. 이 평론에서 이덕성은 만주 조선인 문학이 의식적으로 개척 문학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와 그 논거를 조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開拓民', 總督府서도 改用決定, 『조선일보』, 1939.08.18, 석간 2면.

35) 「大地的 아들—滿洲는 기름져 가고 여기 '開拓者의 生活'이 있다!」, 『조선일보』, 1939.09.24, 석간 2면; 「本報 次回 長篇小說의 珠王篇-百萬 開拓民의 血汗記: 大地的 아들」, 『조선일보』, 1939.09.27, 조간 2면 참고. '대륙 개척 문학' 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었는지는 천춘화의 「대륙문학의 기획과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2017, 『만주연구』 23, 47-72쪽)을 참고할 수 있다.

36) 「光榮의 紀元 二千六百年 慶祝, 本社 事業 其一 鮮系開拓地巡迴慰問班 派遣」, 『만선일보』, 1940.08.09, 1면 참고.

37) 「開拓民版新設—本報 紙面配定變更」, 『만선일보』, 1940.12.01, 1면 참고.

38)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1939년 1월에 伊藤整, 荒木巍, 福田清人, 高見順 등 일본 문인들이 일본 척무성의 지원을 받아 '대륙개척문예간담회(大陸開拓文藝懇談會)'를 조직했다는 사실이다. 장혁주 또한 이 조직의 구성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본의 '대륙 개척 문학'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륙개척문예간담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劉春英·吳佩軍·馮雅의 『偽滿洲國文艺大事記(下)』(2017, 哈爾濱: 北方文艺出版社, 618쪽)과 천춘화의 「대륙문학의 기획과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앞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在滿朝鮮作家의 作品이 모두가 그 속에 期必코 滿洲巴을 뚜렷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문학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朝鮮이 아니고 滿洲라는데 이미 우리들의 創作態度가 決定的인 軌道를 가지게 된다. 滿洲의 朝鮮文學은 勿論 半島出身 開拓民의 大陸開拓生活 속에서 胎生하여 朝鮮文學인 本質下에 成長을 이루어왔다. 朝鮮文學인 本質下에 發展한 開拓民의 文藝라고 해서 그러나 滿洲文學이 오늘날 朝鮮文學의 平面的 延長의 範疇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開拓民의 生活과 開拓地의 文化는 언제나 朝鮮 內地의 文化와 生活을 그 總體에 있어 享受攝取하여 다시 그 위에 開拓地帶의 風土에 따라 플러스의 傳統을 이루는 것이니 보다 強力의인 國家 政策으로서 推進되는 今日의 集團 開拓民에게는 民族性의 그것만 못지않게 技術과 科學精神의 浸透與否가 問題된다.

…(중략)…

先住 開拓民의 生活에 그 全體를 表象하는 所以의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暗默裡에 우리네의 生活을 하루바삐 正常한 狀態에 두어야겠다는 偉大한 共同目的을 達成키 爲하여 피눈물의 努力을 가져왔다는 거기에 벅잡방이로 大地의 心臟에 脈을 보여준 그들의 生活은 그 瞬間에 있어 眞實했고 그 過程에 있어 無上의 價値 創造였다. 우리가 建國을 에픽으로 하여 建國以前의 現實부터 깊게 파고들어가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先進들의 受難의 記錄을 몸으로써 體得해야 할 義務가 메워진 것도 정녕 그 때문이다.³⁹⁾

위의 인용문은 만주 조선인 문학 건설의 복잡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조선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문화 전통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민족적 특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현대적 요소를 융합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개척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한편, 역사와 민족 서사를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만주 조선인 문학 발전에 풍부한 창작 동력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재만 조선 작가들에게는 ‘선조들의 고난의 기록’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국 에픽(epic)’을 집필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명을 부여하였다. 이력성의 만주 조선인 문학 건설에 대한 논증 방식은 일제 말기의 전체주의적 분위기의

39) 李德星, 「在滿作家의 文學(-)」, 『매일신보』, 1942.11.03, 2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리 전개 측면에서는 그의 사유가 신영철이 『씩트는 대지』와 『만주조선문예선』을 편집할 당시의 심경과도 연결되어 있다. 안수길의 회고에 따르면, 이 시기 신영철의 목표는 만주에서 ‘망명 문단’을 건설함으로써 조선 문학의 미래를 지키고, 동시에 조선 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이덕성의 만주 조선인 문학 건설은 1940년 6월 『만선일보』에 발표된 이민구(李敏求)의 「문학이여, 현실로 돌아가라」에서 제시된 대담한 선언을 연상시킨다. 이민구는 “이제야 우리들의 한글 문학의 광휘 있는 정통이 만주의 조선어 문학에 의하여 계승될 날이 가깝게 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⁴¹⁾

이민구의 선언이 대담하고 강렬한 어조로 이루어졌다면, 이덕성은 보다 냉정하고 사변적인 방식으로 이론적 탐구를 전개했다. 1942년 4월 27일, 그는 『만선일보』에 「국민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만주를 조선화(朝鮮化)시킨다”는 것, 둘째, “조선의 전통을 진정으로 보유했을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조선 전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덕성의 평론에서 드러난 국민과 조선의 관계, 전통과 혁신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40) “그때 둘[신영철과 이주복: 필자] 사이에는 “여기다 망명 문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서 말살되고 있는 우리 어문을 여기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문학을 살려야 한다.”—이런 의견이 교환되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문지면은 지금대로 발전하였으나 작품집을 내야 한다는 의견의 속출이었다. “국내에서는 소설집 같은 게 자취를 감춘 지도 오렐 뿐 아니라 우리의 작품들은 심분 특색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 문학에 새로운 것을 더해 주는 일도 될 것이다.”—신씨의 열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은근히 그 준비로 지면에 발표된 작품을 시·수필에 이르기까지 한 편도 빼지 않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안수길, 『龍井·新京時代』, 앞의 책, 265-266쪽.

41) 李敏求, 「文學이여 現實로 도라가라—특히 滿洲의 文學作品에 對하여(三)」, 『만선일보』, 1940.06.04, 3면.

42) 國本宗秀, 「國民의인 것과 朝鮮의인 것」, 『만선일보』, 1942.04.27, 4면.

Ⅲ. 조선 문화의 미래와 태평양전쟁기 문화 동원의 윤리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재만 지식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위만주국 정부는 1942년 1월 18일新京(新京)에서 “문예가 애국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오우치 다카오가 좌장을 맡았으며, 재만 중·일 문인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결과로 “문화 전사(戰士)의 선언”이 제정되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재만 작가들은 만주 문학을 수립하고 ‘국민정신’을 고양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며,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대동아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⁴³⁾ 이러한 전시 동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만선일보』는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라는 칼럼을 신설하였다. 이 칼럼에는 총 11명의 재만 조선 문인이 참여하여 기고문을 발표하였다.⁴⁴⁾ 그중 이덕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와 전쟁 완수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평양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점이 만주 조선 문화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논의하였다.

“朝鮮의 舊文化는 日韓合併을 契機로 하여 一旦 死滅했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는 勿論 나로서도 한 개의 管見을 가졌겠으나 그에 對한 敷衍은 且置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高次的인 文化는 死滅해서도 幾千年間 綿々히 傳해 내려온 感覺, 信仰, 情緒 等 慣習的인 傳統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다. 慣習的인 傳統이란 발레리의 이른바 「襲制」의 나라요. 그것은 말하자면, 神話의 世界인 것이니 神話가 로고스의인 것과 파토스의인 것을 同時에 根抵로 삼는 歷史的 產物임엔 틀림없다 하겠으나, 그러나 襲制와 神話는 破壞에 代置되는 建設的인 文化形成의 地盤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文化를 잃어버린 우리가 그에 代置시킬 새로운 文化를 얻기 爲하여 卽 지멜의 譬喩를 가져온다면, 낡은 가죽(革)에 새 술(酒)을 부으려고 우리는 이윽고 오늘날까지 摸索하고 沈痛하고 分裂하고 超軀하고 그리고 苦惱해 온

43) 「文化戰士의 宣言—文藝家愛國大會에서 發表」, 『만선일보』, 1942.01.21, 6면.

44) 참여자 11명은 다음과 같다: 천청송, 김귀, 김복원, 남승경, 송철리, 안수길, 조학래, 유지환, 김창걸, 이덕성, 신상보.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 칼럼의 설치 배경과 각 문인의 주장은 줄고 「홍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재 담론을 중심으로」(2024, 『국제한인문학연구』 38, 94-104쪽)를 참고할 수 있다.

것이 아니었는가.

大東亞戰爭은 結論은 同時에 곧 始初이다. 그것은 神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스케일의 가장 큰 攝理였으니 이를테면 歷史의 偉大한 根源 現象의 하나로서 文化人의 進路 또한 決定的인 것에 屬한 지 이미 오래이다. 다만 「滿洲」에 있는 우리네 鮮系 文化人으로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知性의 甞음을 끝까지 遂行하기에 合當한 ‘미션’을 資本과 土臺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셸링이 말한 바 第一自然이란 述語가 있는데 第一自然은 곧 憧憬이다. 憧憬이란 셸링에 依하면 創造의 世胎요 유토피아의 搖籃이라는 것이다. 까닭에 우리는 歷史와 傳統을 생각할 때 언제나 셸링의 第一自然을 看過할 수 없다. 그는 그랬거니와 나는 이제 우리들의 資本과 土臺가 될 第二自然, 第三自然을 果然 무엇으로 象徵해야 말하려 했던 것일까……45)

위의 인용문을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이덕성이 이후 발표한 평론에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그 함의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레리의 신화에 대한 인식, 지멜의 “넓은 가족에 새 술을 붓다”라는 비유, 셸링의 자연철학 등은 이덕성이 새로운 문화 단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덕성은 이러한 이론들을 평론 「구성과 문학」, 「조선 문화학의 제일 서설(序說)」, 「만주 작가의 문학」 등에서 거듭 인용하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보강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덕성이 활용한 이론들을 단서로 삼아, 그의 산발적인 사고 조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만주 조선인 문화 구성에 대한 그의 이론적 탐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의 근대화 과정은 식민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체제, 사회 구조, 문화적 요소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새로운 혼란 국면을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 발레리(Paul Valéry)는 『정신의 위기』(1919)에서 전쟁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것들, 가장 위대하고 질서정연한 것들”을 “우연히 사멸하게 만들었다”⁴⁶⁾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으로 전쟁 이후 유

45) 李德星, 「大東亞戰爭과 文筆家의 覺悟」, 『만선일보』, 1942.02.11, 6쪽.

46) 保尔·瓦雷里, 2006, 『瓦莱里散文选』,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222쪽.

렵이 정신적 혼란과 뒤틀림 속에 빠져 있음을 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전 역사에 흐르며 그 내부에 잠재해 있는 ‘유럽의 영혼’⁴⁷⁾을 소환했다. 발레리는 신화에 관한 단상에서 “太初에 神話가 있었다다(Au commencement était la Fable!)”⁴⁸⁾라고 외치며,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했던 시대에 그 어떤 외부 요소로도 물들지 않은 신화”가 흐르고 있다고 믿었다.⁴⁹⁾ 이는 그의 장시 「해변의 묘지」에서 외친 유명한 구절, “바람이 인다! …… 살려고 애써야 한다!”와 맥락을 같이하며, 인간 내면의 정신적 역량을 일깨우고자 하는 호소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파괴를 겪은 조선 또한 스스로의 정신적 토대를 일깨워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원초적 의미의 신화만으로는 근대성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문화 형태를 잉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은 ‘모색’, ‘침통’, ‘분열’, ‘초극’, ‘고뇌’가 얽힌 다층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게오르크 지멜(Georg Simmel)은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의 조각 양식 혁신을 논하며, 콘스탄틴 뫼니에(Constantin Meunier)가 ‘노동’의 미학적 가치를 포착해 이를 조각 예술에 담아냈음에도, 그것이 결국 “낡은 병에 새 술을 붓는 것(pour new wine in old bottles)”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즉, 뫼니에의 시도는 고전주의 양식을 확장했을 뿐, 본질적 초월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로댕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이후 조각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르네상스 이래 처음으로 조각이라는 예술 형식에 본질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지멜은 로댕의 혁신적 양식이 가능했던 이유로, 그의 내면에서 근대적 정신과 미켈란젤로의 고전적 예술 정서가 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⁵⁰⁾ 이덕성이 지멜의 논의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단지 “낡은 병에 새 술을 붓다”라는 흔히 알려진 관용구가 정신과 형식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보

47) 같은 책, 233쪽.

48) 保尔·瓦雷里, 2006. 앞의 책, 281쪽.

또한, 이 비유는 이덕성의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 改題 (六)」(『만선일보』, 1942.07.20, 4면)에서도 인용되었다.

49) 같은 책, 281쪽.

50) 格奥尔格·齐美尔, 2024. 『齐美尔论艺术』, 江苏: 译林出版社. 참고.

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지멜의 논의를 통해, 혁신을 갈망하면서도 기존의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다면, 로댕과 같은 창조자는 언제쯤 등장할 것인가? 혹은 로댕 이후의 새로운 문화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덕성은 ‘대동아전쟁’에서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구는 셸링(Schelling)의 자연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제1자연’은 순수한 물리적 자연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부 심층에 자리한 생명 충동과 정신적 동력에 가까우며, ‘제2자연’은 인류의 이성과 사회·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구축된 보다 높은 차원의 문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제1자연’의 창조적 충동에 의존해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구조, 이성 법칙, 근대적 제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형식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덕성은, 재만 조선 문화인이 ‘대동아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 형태를 모색하려 한다면, 자기 내부의 원초적 동력으로 되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물질적 토대 위에서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보다 성숙하고 현시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2자연’ 또는 ‘제3자연’의 구성으로 설명한다.⁵¹⁾

이처럼, 이덕성은 ‘대동아전쟁’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과정에서 만주 조선 문화 건설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사유 흐름을 독자들에게 공개했으며, 이후 총 11회에 걸쳐 연재된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

51) ‘제1자연’, ‘제2자연’, ‘제3자연’은 셸링의 원어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표현은 아니다. 헤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혹은 근현대 인문학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제1자연’과 ‘제2자연’ 개념과도 차이가 있으며, 셸링 본인 역시 자연을 ‘제1’과 ‘제2’로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자연의 ‘객관적 측면’과 ‘주체적 측면’(또는 무의식과 자각)의 차이, 그리고 ‘자연-정신’의 연속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텐츠(Potenz)’와 단계들을 자주 언급했다.(庄振华, 2023, 「谢林自然哲学的思想宗旨与演进历史(代译者序)」, 谢林, 2023, 『全部哲学尤其是自然哲学的体系』,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7-11쪽 참고.)

이덕성은 이러한 맥락을 활용하여 문화 발전 과정을 여러 ‘자연’으로 구분하는 독자적 개념 체계를 부각하고자 했다. 실제로 그의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에서는 ‘제1서설’이 차후 ‘제2서설’, ‘제3서설’의 전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성과 문학」에서는 “金南天은 『大河』 第一部를 썼거니와 우리들은 이미 『大河』 第二部를 거쳐서 第三部に 屬하는 時代에 生을 營爲하고 있는 아니랄까?”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논지를 이어갔다.(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八)」, 『만선일보』, 1942.08.03, 4면; 李德星, 「構成과 文學(4)」, 『매일신보』, 1942.03.19, 2면 참고.)

(序說)에서 이 논리를 더욱 풍부하게 보완하고 정교화했다.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⁵²⁾의 핵심 의제는 정신사의 관점에서 민족 전통의 역사적 발전 법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고전적 정신이 한 민족의 문화생활을 어떻게 주도해 왔는가에 있다.⁵³⁾ 이를 위해 이덕성은 전통이 정신사의 발전 과정에서 겪는 ‘분열’과 ‘종합’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 $A+X=A$ ’와 ‘ $A=A+X$ ’라는 두 개의 변증법적 방정식을 제시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전통(A)’의 본질은 ‘민족의 총력’이다.⁵⁴⁾ 한편, ‘X’에 대해서는 “땀과 피를 흘리는 그 찰나”⁵⁵⁾라고 표현하며, 이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획득된 지혜(로고스)와 덕성(파토스)을 의미한다. ‘A’와 ‘X’의 변증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특정 시공간에서 ‘A’는 ‘X’와 종합하여 한층 ‘보다 큰 A’가 되고, 이후 다음 단계에서 다시 분열을 거쳐 새로운 ‘X’와 종합한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종합과 분열의 교차 과정을 통해 민족의 정신사가 형성되고 계승된다.⁵⁶⁾

이러한 맥락에서,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에서 이덕성이 제시한 견해는 앞선 이론과 내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는 “무형이면서 언제나 훌륭하게 입체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의 육체 속을 부단히 흐르고 있는 피와 정신이다”라고 주장한다.⁵⁷⁾ 여기서 민족어와 문학이야말로 이러한 “입체화할 수 있는 상

52) 원래 제목은 「소설 문학의 장래」였으나 제4회부터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로 변경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글은 제11회(1942년 8월 2일)까지 연재되었다. 제11회 말미에는 ‘계속’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나, 현존하는 『만선일보』 자료에서는 이후의 연재분을 찾지 못했다. 또한, 1942년 8월 10일자 『만선일보』 일부가 유실되어 제9회 역시 산일된 상태다. 자세한 게재 정보는 본 연구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은 완성도 높은 체계적 이론이르기보다는, 당시 이덕성의 사유 단편(斷片)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덕성 또한 이 글을 집필하는 목적이 현재 순간의 사유를 포착하고, 사유와 집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하려는 데 있음을 밝힌 바 있다.(國本宗秀, 「小説文學의 將來(三)」, 『만선일보』, 1942.06.08, 4면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 전통에 대한 그의 인식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종교나 사회 문화 등 기타 주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54)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改題(五)」, 『만선일보』, 1942.07.13, 4면 참고.

55)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改題(四)」, 『만선일보』, 1942.06.15, 4면 참고.

56) 같은 글.

태”에 해당하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민족이 지닌 전통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갖춘다고 본다. 이덕성에게 언어는 인간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느 민족이든 모국어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모국어를 가장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민족적 속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⁵⁸⁾ 언어를 통해 구축되는 문학은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을 드러낼 뿐 아니라, ‘A’를 개인의 정신 차원으로 더욱 내면화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재차 호출하도록 돕는다.⁵⁹⁾ 따라서 전통은 결코 완전히 망각되지 않는다.⁶⁰⁾

나아가, 정신사의 전개 과정에는 ‘종합’과 ‘분열’이라는 양면이 항상 공존하기에, ‘A’ 자체에는 분열되거나 다시 종합될 가능성이 잠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현상이 무조건 그대로 계승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저항이나 비판이 가능하되, 그렇다고 전통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⁶¹⁾ 또한, 이덕성은 ‘A’를 민족의 강약을 결정짓는 근본적 요소로 파악하는 한편, ‘X’가 ‘A’의 발전을 주도한다고 보았다.⁶²⁾ ‘A’가 어떻게 ‘민족의 총력’을 보여 주는지에 대해, 이덕성은 단편적인 몇 가지 현상만으로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⁶³⁾ 그리고 한 민족이 세계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건은 문학의 존재 여부이며, 그 문학의 존재는 다시 민족의 실천에 의존한다고 강조한다.⁶⁴⁾ 이와 함께 그는 문학 외에도 경제가 ‘X’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언급한다. 인간의 모든 윤리(종교, 정신, 미감, 사상)는 경제에서 출발하며, 인간이 로고스적

57)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改題(五)」, 『만선일보』, 1942.07.13, 4면 참고.

58) 같은 글.

59) 國本宗秀, 「小説文學의 將來(一)」, 『만선일보』, 1942.05.04, 4면; 國本宗秀, 「小説文學의 將來(二)」, 『만선일보』, 1942.05.25, 4면 참고.

60)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改題(五)」, 『만선일보』, 1942.07.13, 4면 참고.

61) 같은 글.

62) 같은 글.

63)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一〇)」, 『만선일보』, 1942.08.17, 4면 참고.

64) 國本宗秀, 「小説文學의 將來(三)」, 『만선일보』, 1942.06.08, 4면.

인 차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근본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문화 자원을 끊임없이 창출하며, 이를 'X'로 삼아 정신사의 발전을 이끈다.⁶⁵⁾ 이런 맥락에서, 이덕성이 「대동아전쟁과 문필가 각오」에서 만주 조선 문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지성의 쌓음을 끝까지 수행하기에 합당한 ‘미션’을 자본과 토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⁶⁶⁾라고 요구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조선의 전통을 진정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만이 참된 조선 전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덕성의 관점에 윤리의 기반을 제공한다.⁶⁷⁾

그렇다면 태평양전쟁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선 민족의 총력(A)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또한, 태평양전쟁 시기의 문화 건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이덕성이 「만주 문화인의 과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핵심 주제이다.

…(전략)…우리에게 몸으로써 體得시킨 것이 卽 十二月八日의 歷史의 날이었다. 그러면 滿洲의 文化人에게 메워진 오늘날의 負荷와 課題는 果然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理念과 確信으로 滿洲文化를 爲하여 몸을 바칠 것인가?

大東亞聖戰 遂行에 있어 滿洲國에 賦課된 北塞防禦와 食糧供給基地로서의 役割이

65) 國本宗秀,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小説文學의 將來』改題(七)」, 『만선일보』, 1942.07.27, 4면 참고.

66) 李德星, 「大東亞戰爭과 文筆家의 覺悟」, 『만선일보』, 1942.02.11, 6면.

67) 國本宗秀, 「國民의인 것과 朝鮮의인 것」, 1942.04.27, 4면.

참고로, 1943년 3월 『매일신보』에 게재된 평론 「구성과 문학」에서 이덕성은 이전에 『만선일보』에 발표했던 여러 견해를 종합하며 조선 민족의 정신사를 토대로 한 ‘구성문학론(構成文學論)’을 시도했다. 이 ‘구성문학론’은 사실상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에서 등장하는 “ $A+X=A$ ”, “ $A=A+X$ ”라는 변증법적 방정식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일신보』라는 매체가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이 글에서 일본과 관련된 서술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만주 문화인의 과제」에서 “滿洲에 있는 文化人 또한 直接으로 世界新秩序文化建設에 參與한 者이다.”라고 서술했던 부분은, 「구성과 문학」에서는 “우리들은 日本의인 世界觀에 歸一함으로써 朝鮮文學을 直接으로 世界史에 參與케 하였다.”로 변화했다. 또한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에서 “朝鮮의 舊文化는 日韓合併을 契機로 하여 一旦 死滅하였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勿論 數千年間 綿綿히 傳해 내려온 感覺, 信仰, 情緒 等等 慣習인 傳統은 그대로 살아 있겠으나 그것만 으로서 破壞에 代置시킬 建設의인 文化形成의 地盤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구성과 문학」에서는 “朝鮮의 舊文化는 日韓合併의 契機로 하여 一日死滅하였다고 보아 마땅하다”라는 표현만 남게 되었다.

큰 것이 있음은 더 말할 것 없겠지만 다시 그 위에 滿州國의 儼然한 存在는 大東亞共榮圈의 앞날을 約束하는 第一의 王道樂土라는 點을 잇어서는 안 된다. 大東亞戰에 有終의 美를 거두는 第二, 第三, 第四 …의 道義國家의 建設이 完成될 때이다. 여기에 大東亞圈內에 움직일 수 없는 地位를 차지한 滿州國이 直接으로 世界新秩序에 參與할 意義를 알 수 있고 이 大東亞共榮圈과의 連屬關係는 卽 滿州國의 가진바 獨特한 矜持가 아닐 수 없다. 滿洲에 있는 文化人 또한 直接으로 世界新秩序文化建設에 參與한 者이다. 우리는 이 矜持를 臨時라도 잇을 수 없다. 자칫하면 우리는 日本文化의 糟粕을 되집고 從屬의 地位에 安住한다는 批難을 들어왔다. 過去의 여러 가지 現實은 그것을 不得已하게 한 바 있었고 또 日本文化를 우리는 곧 우리의 血肉으로 만들어야 할 것은 必至的이 어니와 第二, 第三의 道義國家가 誕生되는 오늘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스스로 明確한 이데아가 輪廓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싸워야 겠다. 知性의 倫理는 從屬을 容許치 않고 그리고 知性人에게는 오직 戰爭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文化人으로서 가져야 할 ‘精神’과 ‘技術’이 무엇보다 當面의 課題이고 다시 그밖에 滿洲라는 特殊現實은 ‘文化浸透’라는 커다란 負荷를 우리에게 준다. 이 文化浸透의 問題는 滿洲에서는 實로 重大性을 가졌다. 高度文化의 建設이란 그 全體를 두고 말하는 것이로되 全體란 어디까지든지 全體를 形成하는 個個의 모나드(Monad)와 有機的 聯關을 가진 것으로 文化의 高度性 또한 基層文化의 浸透 如何로 決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滿洲의 우리는 世界新秩序建設에 直接의 參與를 가졌다는 矜持로서 文化人으로서의 高度의 精神과 技術을 涵養하는 同時에 다시 基層文化를 爲 하여 敢然生活에 뛰어 들어가는 拓土여야 할 것이다.⁶⁸⁾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덕성은 태평양전쟁이 조선 민족 총력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 다소 순진하면서도 열렬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의 논리는 단순명료하다. 곧, 일제 말기에 대두된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대동아전쟁’의 승리와 결합될 경우, 위만주국은 세계 신질서 속에서 ‘최고의 왕도낙토(王道樂土)’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재만 조선인

68) 國本宗秀, 「滿洲文化人の 課題—文化時評」, 『만선일보』, 1942.03.16, 4면.

의 문화는 위만주국의 국력 증가에 따라 내선일체 체제하에서의 “일본문화의 조강(槽綱)을 되짚는 종속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덕성은 전쟁 중 재만 조선 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주 조선인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재만 조선인의 지위를 확립하고, ‘문화 침투’를 통해 민중에게 조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고취함으로써 민족 총력의 추가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그의 저서 「국민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에서 제시된, 이른바 ‘만주를 조선화시킨다’는 논리의 기초가 된다.⁶⁹⁾

IV. 나가며

이덕성은 1941년부터 해방 때까지 만주 조선인 문학 장에서 활동한 문인이다. 그는 1948년에 사망하였으며, 주된 활동 무대였던 『만선일보』가 대부분 유실되어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만선일보』, 『만주일일신문』, 『매일신보』 및 그의 지인들의 회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평론 세계를 조망하고, 1941년 이후 만주 조선인 문학 장에서 이덕성이 차지한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이덕성은 서로 다른 독자층(재만 조선인, 재만 일본인, 식민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신문에서 활동하며 민족어 사용과 문학 창작이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주 조선인 문학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그의 사상적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그는 주관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조선 본토 작가나 재만 일본 작가 등 비(非) 재만 조선인이 만주 조선인 문학의 개념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했다. 둘째, 당대 내 세워진 민족협화의 구호를 활용하여, 위만주국에서도 민족어로 문학 창작을 지속하고 조선 문학의 민족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명을 정당화했다. 셋째, 그는 ‘재

69) 國本宗秀, 「國民적인 것과 朝鮮적인 것」, 『만선일보』, 1942.04.27, 4면.

만 조선 문인'과 '만주 조선인 문학'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재만 조선 문인의 주체적 탐구를 강조하고 문학 개척에 필요한 이론적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일제 말기에 제기된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이덕성으로 하여금 위만주국이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품게 했다. 그가 구상한 민족 정신사의 발전 구도는 민족 전통이 문화 건설과 경제 발전이라는 실천을 통해 로고스와 파토스를 획득하고, 이 복합체가 각 단계에서 분열과 결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민족의 세계 질서 내 위상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는 태평양전쟁의 문화적 동원에 극도의 열의를 보였으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낙관하며 이후 만주 조선인 문화가 일본에 의해 억압받는 부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평양전쟁 시기 재만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다. '오족협화'와 『예문지도요강』을 통해 이덕성이 위만주국을 식민지 조선의 민족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다고 본다면, 그가 '대동아전쟁'을 옹호하며 경제가 민족 정신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만주국의 괴뢰적 정치 본질을 외면한 점은 그의 사상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조선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제 말기로 갈수록 사회 변혁이라는 이상을 점차 포기하고 민족 개량으로 관심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1942년 11월 이후 『만선일보』의 자료가 거의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후기, 특히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이덕성이 '전쟁 완수'에 대한 기대를 바꾸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42년 6월 26일, 이덕성이 병중에 재만 조선 문인 이약림(李若林)에게 보낸 글 「늙은 느릅나무 아래의 기록[老榆樹下記錄]」(1942년 6월 29일자 『만선일보』 게재)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묘사되었다. 어느 우주에서 '나'는 한 늙은 느릅나무 아래 기대어 있는데,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소리와 보리 향기뿐이다.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또 다른 우주에서 '또 다른 나' 역시 느릅나무에 기대어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그 '또 다른 나'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달려가려 하지만, 무언가에 부딪혀 의식을 잃는다. 깨어나 보니

여전히 느릅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왼손은 쇠사슬에 묶여 손목 마디마다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다. 또한,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나 이전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아마도 의식(意識)을 잃어버리기 전부터 나는 철쇄의 포로가 되고 있었던가 봅니다.”⁷⁰⁾

이 글이 쓰인 시점은 이덕성이 「소설 문학의 장래」의 제목을 「조선 문화학에의 제1서설」로 바꾸는 사이의 일이었다. 글 속 이야기에 대해 이덕성은 명시적으로 해설하지 않았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곧, ‘나’가 심신이 지치고 세계와 단절될 무렵 무의식중에 이상적 자아(또 다른 나)를 찾으려 하지만, 수없이 고통을 망각하고 낙관을 품으며 부딪친 끝에 외부 세계의 강력한 구속으로부터 더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시시포스처럼 끝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쇠사슬을 찬 채 춤을 추며 황량한 고독을 감내할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는 아마도 식민지 시기의 모든 조선 지식인들이 이상이 좌절되는 순간에 직면해야 했던 필연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70) 李德星, 「老榆樹下記錄」, 『만선일보』, 1942.06.29, 4면.

부록: 이덕성 작품 목록

| 게재 일자 (면수) | 신문지 | 제목 | 비고 |
|----------------------|--------|-------------------------------------|------|
| 1940.12.29 (4면) | 만선일보 | 文學과 生活 (上) - 芥川氏와 앙드레·지드의 두 작가에 對하여 | |
| 1940.12.31 (4면) | 만선일보 | 文學과 生活 (下) - 芥川氏와 앙드레·지드의 두 작가에 對하여 | |
| 1941.08.29 (조간 4면) | 만주일일신문 | 朝鮮文學의 性格 (1) - “農民” 登場의 時代 | 岡本宗秀 |
| 1941.08.30 (조간 4면) | 만주일일신문 | 朝鮮文學의 性格 (2) - 作家以前의 精神 | 岡本宗秀 |
| 1941.08.31 (조간 4면) | 만주일일신문 | 朝鮮文學의 性格 (3) - 我らの 生きる 道 | 岡本宗秀 |
| 1941.12.30 (4면) | 만선일보 | 文壇送年有感 (上) - 意識에의 志向 | |
| 1941.12.31 (4면) | 만선일보 | 文壇送年有感 (下) - 作家論의 性格 | |
| 1942.01.01 (부록3, 2면) | 만선일보 | 開拓文化의 倫理 (1) | |
| 1942.02.11 (6면) | 만선일보 | 大東亞戰爭과 文筆家의 覺悟 | |
| 1942.03.16 (4면) | 만선일보 | 滿洲文化人의 課題 - 文化時評 | 國本宗秀 |
| 1942.03.23 (4면) | 만선일보 | 藝文交流를 爲하여 - 朝鮮作家의 位置 (一) | 國本宗秀 |
| 1942.04.06 (4면) | 만선일보 | 藝文交流를 爲하여 - 文學의 自主性 (二) | 國本宗秀 |
| 1942.04.20 (4면) | 만선일보 | 藝文交流를 爲하여 - 滿洲藝文의 性格 (完) | 國本宗秀 |
| 1942.04.27 (4면) | 만선일보 | 國民的인 것과 朝鮮的인 것 | 國本宗秀 |
| 1942.05.04 (4면) | 만선일보 | 小說文學의 將來 (一) | 國本宗秀 |
| 1942.05.25 (4면) | 만선일보 | 小說文學의 將來 (二) | 國本宗秀 |
| 1942.06.08 (4면) | 만선일보 | 小說文學의 將來 (三) | 國本宗秀 |
| 1942.06.15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 『小說文學의 將來』 改題 (四) | 國本宗秀 |
| 1942.06.29 (4면) | 만선일보 | 老榆樹下 記錄 - 若林에게 | |
| 1942.07.13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 『小說文學의 將來』 改題 (五) | 國本宗秀 |
| 1942.07.20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 『小說文學의 將來』 改題 (六) | 國本宗秀 |
| 1942.07.27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 『小說文學의 將來』 改題 (七) | 國本宗秀 |
| 1942.08.03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八) | 國本宗秀 |
| 1942.08.17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一〇) | 國本宗秀 |
| 1942.08.24 (4면) | 만선일보 | 朝鮮文化學에의 第一序說 (十一) | 國本宗秀 |
| 1942.11.03 (2면) | 매일신보 | 在滿作家의 文學 (一) | |
| 1942.11.04 (2면) | 매일신보 | 在滿作家의 文學 (二) | |

| | | | |
|-----------------|------|--------------|----|
| 1942.11.05 (2면) | 매일신보 | 在滿作家의 文學 (三) | |
| 1943.03.14 (2면) | 매일신보 | 構成과 文學 | |
| 1943.03.15 (2면) | 매일신보 | 構成과 文學 (2) | |
| 1943.03.16 (2면) | 매일신보 | 構成과 文學 (3) | |
| 1943.03.19 (2면) | 매일신보 | 構成과 文學 (4) | |
| 1949.02.22 발행 | 正音社 | 『조선고대사회연구』 | 유고 |

참고문헌

1. 사료

- 『만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滿洲日日新聞』
『東滿洲産業株式會社 社業概觀』, 1941, 東京: 善信堂印刷社
이덕성, 1949, 『조선고대사회연구』, 정음사
강진호 편, 1999, 『한국문단 이면사』, 깊은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50년사』, 오름시스템

2. 논문 및 저서

- 리하일라·허워드, 백종륜 역, 2022,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연구』 35
사책, 2022,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_____, 2024, 「홍보신체제의 확립과 만주 조선 지식인의 문화 동원: 『만선일보』 학예면 소재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8
_____, 2024, 「만주 조선인 문학 장의 형성과 전개: 『만선일보』 문학 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선태, 1996, 「‘중국사회사 논전’의 수용과 새로운 국가형성론의 전개」, 『역사와 현실』 20
장춘식, 2012, 「『만선일보』 지상토론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의 가치와 의미」, 『건지인문학』 8
전경선, 2016, 「태평양전쟁 말기 만주국의 문예정책: 잡지 ‘藝文’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1
천춘화, 2017, 「‘대륙문학’의 기획과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만주연구』 23
格奥尔格·齐美尔, 2024, 『齐美尔论艺术』, 江苏: 译林出版社
单援朝, 2016, 『漂洋过海的日本文学: 伪满殖民地文学文化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刘春英·吴佩军·冯雅, 2017, 『伪满洲国文艺大事记(下)』, 哈尔滨: 北方文艺出版社
刘晓丽, 2017, 『异态时空中的精神世界: 伪满洲国文学研究(修订本)』, 哈尔滨: 北方文艺出版社
谢林, 2023, 『全部哲学尤其是自然哲学的体系』,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保尔·瓦雷里, 2006, 『瓦莱里散文选』,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 Abstract ■

Lee Deok-seong and the Politics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in Manchuria

Shi Ce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During his years in Manchuria, Lee Deok-seong (1915-1948) used literary criticism to great effect in negotiating the contradictions of colonial modernity. Across nearly fifty essays, he wrestled with the opposing pulls of tradition and innovation, nationalism and imperialism, and sought ways to secure cultural autonomy and articulate a distinctly Korean literary identity. Even amid the cultural clashes and displacements of the Pacific War, Lee's insistence on literature's ethical and historical responsibilities helped delineate the contours of wartime Korean literary criticism in Manchuria.

Drawing on Lee's surviving works this study traces both the evolution and the limits of his intellectual position and provides a nuanced view of how his criticism reflected the shifting boundaries of Korean literary thought under empire. His efforts to blend Western theoretical frameworks with Korean national discourse in ways that reveal an emerging independent logic—one that developed in tandem with the ideological transformations of that time.

Key words: Lee Deok-seong, Korean literary criticism, cultural autonomy, nationalism, *Guidelines for Literary Guidance*